

## 신학 6년 연계 교과과정의 필요성: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송 영 목 · 정 찬 도

고신대학교, 신약신학

### 1 들어가면서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에 목양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신학 교과과정에 있어 미흡한 면이 적지 않으며,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에 신학교육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공개적 반성이 일어났다.<sup>1</sup> 신학교육은 현장성이 간과된 채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신학교-교회-사회가 상호 연결되어 교회와 사회

\* 논문투고일 : 2016. 4. 30

논문수정일 : 2016. 6. 15

게재확정일 : 2016. 6. 20

1 “제 6명제: 우리의 신학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에 힘쓴다.… 먼저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회자 양성을 담당하는 신학교 및 신학교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약 3:1)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 우리는 신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뿐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서의 소명과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일동,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성명,” 2015년 8월 15일.

를 변혁시키는 수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sup>2</sup> 따라서 오늘날 신학교육은 교파와 인종에 따라 다양할 뿐 아니라 통전성과<sup>3</sup> 실천적 적합성을 추구하고 있는데,<sup>4</sup> 특히 온라인 신학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한다.<sup>5</sup> 한국의 경우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과정에서 3년간 속성으로 수학 후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sup>6</sup> 신학과 출신들이 신대원

---

2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연합(ELCA) 소속 Jonathan P. Strandjord, "For the Sake of Liberating Wisdom: The Near-Future of Theological Education,"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1(2014, 4): 254; Michael Pasquarello III, "God Our Teacher: A Wesleyan Vision of Theological Edu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8 (2013, 2): 79; 서인선, "한국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신약신학 과목의 교육 방법론과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0호 (2006년): 46-47.

3 한 예로, 통전적 선교학 교육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이지아 공동체적 교육, 강의와 더불어 소통적 교육, 보편적이지아 상황적 교육, 글로벌하지아 상호문화적 교육, 지적이지아 인격형성적 교육, 행동적이지아 성찰적 교육, 학적이지아 교회에 적합한 교육. Darren Cronshaw, "Reenvisioning Theological Education, Mission and the Local Church," *Mission Studies* 28 (2011): 111.

4 Strandjord, "For the Sake of Liberating Wisdom," 247-255; James H. Costen, "Black Theological Education: Its Context, Content and Conduct," *Journal of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 39 (2014, 1): 9-19; 북미신학교연맹 디렉터 Daniel O. Aleshire, "Diversity in Theological Education and the Life of the Church,"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1(2014, 4): 232-239.

5 Anthony J. Elia, "Assessing the Future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Theological Education: A Techno-History and its Legacy,"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Summary of Proceedings* 68 (2014): 44. 하지만 멘토링을 통한 전인적인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신학교육을 온라인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Georgy R. Sumner, "The Second Canary: Thoughts on Theological Education," *Pro Ecclesia* 24 (2015, 3): 269.

6 오래 전부터 신대원 교과과정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석의, 교리, 역사배경 훈련의 약화를 우려해 왔다. R. A. Mohler, "Thinking of the Future: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 in a New Age," in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Evangelical Tradition*, eds. D. G. Hart and R. Albert Mohler, Jr. (Grand Rapids: Baker, 1996), 281.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반 성도 53.75%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인품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면서, 학부 신학과 출신으로서 신대원 졸업생을 선호했다. 일반 성도가 비신학과 출신으로서 신대원 졸업생을 선호한 비율은 43.75%였다. 이것은 대학 졸업 후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대 초반에 실시하는 신앙인격훈련이 더

에서 심화된 연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손실인데, 많은 교단 신학교들에게 숙제로 남아있다.<sup>7</sup> 이 글에서는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총신대 및 연계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해외 개혁신학교들의 교과과정과 비교할 것이다. 그 후 신학과와 신대원의 6년 연계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비신학과 출신들을 위한 차별화된 신학과와 신대원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6년 연계과정이 시행될 때 기대되는 유익도 살필 것이다.<sup>8</sup>

## 2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과정

고신대학교 신학과가 부산 송도캠퍼스에서 부산 영도본부로 옮긴지 33년째인 현재까지 1946년 ‘고려신학교 설립취지문’에 담긴 신학과와 신대원의 연계 교육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sup>9</sup> 더욱이 1998년에 신대원이

---

효과적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성도는 목회자의 ‘스펙’보다 ‘성품’을 우선한다,” 「기독신문」 2016년 1월 5일.

7 1960-70년대의 신학 연계교육 제안에 관하여 Thomas C. Campbell, “Theological Curriculum for the 1970’s,” *Theological Education* 4 (1968, 3): 672를 참고하라.

8 “신학교부터 새로워져야”라는 「기독교보」 2015년 12월 23일자에서 변종길 고신대신대원장은 목회자 양성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신대원을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고신대 일반대학원이 변원장이 제시한 전문대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대원 지원자가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외연 확장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http://www.knews.or.kr/news/view.html?smode=&skey=%BA%AF%CI%BE%B1%E6&x=22&y=11&section=79&category=83&no=6877>(접속일 2016년 1월 13일). 이 논문의 모든 인터넷 접속 일자는 동일하므로 이후로 별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9 1946년 약 5페이지에 달하는 ‘고려신학교 설립취지문’ 가운데 이 논문의 전개와 연관된 중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현하(지금) 우리 조선민족…의 건국은 진리를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면 않된다. …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의미에서 정통진리의 운동을 필요로 하는 바이지만, 보통은혜 원리의 영역에서 조국을 주님의 진리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 대학제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구랍(유럽)에서 기독교회가 창립한 것이 아님닛가? 역사가 오래 캠프리지, 옥스퍼드 대학 등이 개시(전부) 교회대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문

송도캠퍼스에서 천안으로 이전하여 연계 교육의 가능성은 더 소원해 졌다. 연계과정의 필요한 이유는 신학과에서 이수한 많은 과목이 신대원에 중복 개설되기에 신학과 출신들의 학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80%에 달하는 비신학과 출신에 초점을 둔 신대원 교과과정상, 신학과 출신들이 심화된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보인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학과 출신이 계속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신대원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여, 고신대 신학과 교수회는 지난 2000년에 신학과 출신들은 신대원을 2년에 졸업할 수 있도록 신대원에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비정상적 교과과정이 계속되면 신학과의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연계 교육을 시행하려면 신학과의 교과과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 2.1 1946-1981년의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교과과정

1982년 이전의 신학과와 신대원의 연계교육은 강의실은 물론, 학부 1학년생부터 신대원 3학년생까지 함께 생활한 기숙사에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학부와 신대원의 전공관련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다:<sup>10</sup>

---

화운동도 먼저 천국을 구하는 정통신학운동에 수반되어 가장 참되게 일원진다고 믿는 바입니다.” 참고로 고신대의 교육 목표는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 겸비, 넓고 깊은 학문 연구와 기술 습득에 진력,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 사회를 위해서 봉사”다. 고신대 신대원의 교육 목적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 사역자 배출이다.

10 고신대학교의 전신 ‘고려신학교’가 설립된 1946년부터 영도본부로 이전하기 직전인 1981년까지, 신학과와 신대원 학적부를 통해서 확인한 이수 과목 자료다. 신학과와 신대원 학생 한 명씩 10년 단위로 선별했다. 도표에서 굵은 글씨는 중복되는 과목을 가리킨다.

	신학과	신대원
1940년대	자료 없음	성경신학, 출애굽기, 공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시록,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교회정치, 목회학, 고고학, 철학
1950년대	창세기, 출애굽기, 학개, 헬라이어, 공관복음,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유다서, 교리, 칼빈주의, 변증론, 진화론, 윤리학, 기독교윤리	성경신학, 신구약전승사, 창세기, 시편, 호세아, 신약총론, 공관복음, 로마서, 바울신학, 유다서, 계시록, 조직신학, 교리사, 속죄론, 변증학, 사도사, 교회사, 고고학
1960년대	히브리어, 구약과 선택문학, 신약개론, 헬라이어, 사도행전, 기독교철학, 칼빈주의, 교파연구, 기독교사회의학, 윤리학(기타: 일반영어, 라틴어)	성경개론, 헬라이어, 히브리어, 원문비평, 오경, 시편, 지혜문헌,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개론, 공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옥중서신, 목회서신, 계시록, 조직신학, 교회사, 스펜스강, 종교교육, 교육학, 고고학, 강도학, 성경신학, 영어, 교리사, 교회정치, 비교종교, 반달특강, 목회학, 기독교윤리, 변증학, 선교역사
1970년대	구약요람, 구약시대사, 성문학, 신약요람, 신약역사, 헬라이어, 기독교교리, 기독교사상강독, 철학개론, 신학개론, 기독교교육원론, 기독교철학, 조직신학서론, 변증학, 신조학, 교회사서론, 한국교회사, 칼빈연구, 루터연구, 비교종교학, 기독교와 사회, 기독교인간론, 기독교문헌(기타: 정신위생, 교련)	히브리어, 구약총론, 구약역사, 구약신학, 오경, 시가서, 선지서, 소선지서, 헬라이어, 신약총론, 신약신학, 복음서, 복음석의, 비유연구, 요한복음, 로마서, 서신석의, 설교연습, 교회사, 교회문서, 교리사, 조직신학, 설교학, 전도학, 선교학, 사도사, 목회상담, 기독교윤리, 퓨리탄연구, 교회와 가정, 보건위생학, 목회학, 교회헌법, 변증학, 설교학, 엘렙틱스, 교련
1980-1981년	구약개론, 구약역사, 구약요람, 구약신학원서강독, 헬라이어, 신약역사, 신약신학특강, 신약요람, 신론, 칼빈주의, 역사신학강독, 한국교회사, 중세교회사, 조직신학서론, 변증학, 기독교교리, 기독교사회의학, 윤리학, 실천신학원강, 현대신학강독, 기독교철학	히브리어, 구약총론, 구약성경신학, 오경, 시가서, 선지서, 후선지서, 신약학특강, 신약총론, 신약비평, 신약성경신학, 복음사, 복음석의, 서신석의, 교회사, 조직신학, 변증학, 설교학, 실천신학개론, 성경해석학, 교회성장학, 한국장로교회사, 현대교회사, 기독교윤리, 엘렙틱스, 사도사, 기독교, 성령론 및 구원론, 예배학, 전도학, 특수전도학, 신구약중간사, 교회론 및 말세론, 목회학, 선교학, 교회헌법, 설교연습, 논문, 사회윤리, 교회헌법, 목회상담학

신학과와 신대원의 중복 과목은 1950년대 5과목, 1960년대 5과목, 1970년대 10과목, 1980-1981년에 8과목으로 점증했다.

## 2.2 현재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전공 교과과정 분석

신대원은 입학 후 1학년 교과과정에서 고신대 신학과 출신과 비신학과 출신의 수업을 분반하여 차별화된 강의를 진행한다. 이 제도는 비신학과

출신들과 신학과 출신들의 신학적 소양의 간격을 줄여보려는 신대원의 노력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1학년 동안 이 차별화 정책에 따라 분과 담당 교수들에게 각각 다른 제목의 강의가 개설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 신학적 이해가 다름을 전제하여 분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과 출신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증명한다.

(2) 신대원의 졸업 필수 학점 요건으로 비신학과 출신이 106학점이며, 고신대 신학과 출신은 96학점이다. 신학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동안 전공 과목을 최소 60학점 이상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단 10학점만 신대원에서 인정을 받는 셈이다. 즉 한 학기 과정의 학점도 되지 못하는 학점만 인정 받는 것인데, 이 10학점은 매학기 1과목만 더 수강하여도 3년 과정 안에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후 고신대 신학과에 바로 진학하기 보다는 비신학을 전공한 후 신대원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3) 1학년에게 적용되는 신대원의 분반제도가 신학과 출신들과 비신학과 출신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신학과 출신들이 신대원 교과과정 중 신학과 수업과 중복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경우,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비신학과 출신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으로 비쳐진다. 다시 말해, 동기부여 결여 및 신학적 지식 습득에 대한 불만족이 이제 처음으로 신학을 배우는 비신학과 출신들에게는 교만하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따라서 비신학과 출신들은 다소 부정적 의미로 ‘고신대 신학과 출신들’이란 말을 드물지 않게 사용한다(총신대 신학과 출신 신원생들을 비신학과 출신은 ‘충충’이라 부름).

신대원 1학년 동안 분반으로 인한 역효과와 신학과 졸업생이 갖는 장

점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고신대학교 신학과 4년 전공 과정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4년 전공 과정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 과정을 비교한 뒤, 두 학교 교과과정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표 1] 신학과와 신대원의 전공관련 교과과정 비교

과목	신학과 11	신대원 12
구약학	구약총론 I,II,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히브리어문법, 구약총론, 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히브리어강독, 구약석의
신약학	신약총론 I,II,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목회서신	헬라이어문법, 신약총론,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성경해석과 설교, 헬라이어강독, 신약석의
역사신학	초대교회사, 종교개혁사, 중세교회사, 한국교회사	고대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고신정신과 한국교회사
교의학	교의학서론, 기독교와 과학, 윤리학개론, 개혁주의성경관, 교의학원강, 신조학	신조교의학, 신론, 인간론-기독교론, 성령론-구원론, 교회론-종말론
윤리학		기독교윤리학, 현대교회와 윤리문제
실천신학	실천신학개론, 교회교육과 제자훈련, 선교학, 이단사상연구, 실천신학강독	교회교육, 목회상담학, 목회와 영성, 예배학, 설교학, 설교실습, 교회정치, 목회실습, 상담실습
선교학		선교학, 전도학
기타	신학영어 I,II, 헬라이어문법 I,II, 독문신학강독, 신학독일어, 헬라이어강독 I,II, 히브리어문법 I,II, 히브리어강독, 철학개론, 중세철학, 현대사상사, 고대철학, 현대신학개론	

위의 표를 근거하여 신학과 출신이 신대원에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을 학점으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1 고신대와 신대원 2015년 1-2학기 커리큘럼에 근거한 것이다. <http://ssg.kosin.ac.kr>

12 <http://www.kts.ac.kr/ww2/contents.knf?cid=c120406233255>



[표 2] 신대원 전공과목 이수 학점 비교

구분	구약학	신약학	교의학	역사신학	윤리학	실천신학	선교학
비 신 학 과 출신	20	19	14	12	5	20	5
신학과 출신	17	16	11	9	3	20	5

위의 [표 2]를 볼 때 신학과 출신들이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구약학, 신약학, 교의학, 역사신학, 윤리학에서 각각 1과목씩이다. 이를 다시 [표 1]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신학과 출신들이 신대원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전공과목에 대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3] 신학과 출신이 신대원에서 새로 이수하는 전공과목 학점과 비율

구분	구약학	신약학	교의학	역사신학	윤리학	실천신학	선교학
학 점	5	5	11	3	2	18	2
과목수	2	2	4	1	1	8	1
비 율	34%	32%	100%	33%	67%	90%	40%

위의 표들이 제시하는 바에 근거하여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과정에 대해 분석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신학과 출신들은 신대원에 진학하여 3년 동안 성경분과와 역사신학에서는 단 한두 과목씩만 새로운 과목을 접하게 된다. 물론 제목이 같을지라도 다른 교수에게 배운다는 신선함과 강점을 가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전달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며, 이는 마치 중복 학점 이수로 여겨진다.

(2) 신학과 출신들은 실천신학과 교의학 분과에서만 새로운 신학 지식을 많이 접하게 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타 분과에서는 3년 과정 중에 1-2



과목씩만 새롭게 접하게 된다.

(3) 신학과 출신들은 졸업 학점인 96학점 중 반이 채 되지도 않는 46학점만 새롭게 배운다. 즉 전체 96학점 중 새로운 과목은 약 48%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약 43%가 실천신학 분과의 과목이다.

### 3 국내외 개혁신학교의 연계 교과과정

#### 3.1 타 교단 기독교(신학)대학교-신대원 교과과정

지면 제약 상, 고신대와 개혁신학을 공유하는 총신대 신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의 경우만 살펴보며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총신대 신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의 전공관련 교과과정 비교

구분	총신대학교 신학과 13	총신대 신대원 14
구약학	언약과 그리스도,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아모스, 구약의 기도와 영성, 구약윤리, 구약과 인문교전, <b>구약성경신학</b>	구약서론,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b>구약신학</b>
신약학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b>요한복음연구</b> , 사도행전, <b>바울서신</b> , 신약영문강독	신약서론, 성경해석학, 공관복음, <b>요한문헌</b> , <b>바울서신</b> , 신약신학
교의학	개혁신학입문,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교회란 무엇인가, 현대신학개요, 기독교변증, 현대종말사상, 하나님과 인간이해, 복음과 적용, 현대신학세미나, 종교다원주의	신학서론, 변증학, 인간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현대신학, 기독교윤리
교회사	초대교회사, 청교도사상, 기독교강요연구, 장로교회사, 중세교회사, 한국종교와 기독교,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 및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장로교회사

13 총신대 2015년 1-2학기 교과과정에 근거한 것이다. <http://csts.chongshin.ac.kr/>

14 [http://www.chongshin.ac.kr/mbs/csu/subview.jsp?id=csu\\_030101010000#goto03](http://www.chongshin.ac.kr/mbs/csu/subview.jsp?id=csu_030101010000#goto03)

실천신학	선교학개론, 성경과 상담, 개혁주의실천신학 세미나, 교회와 제자훈련, 청소년 상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목회와 기도	선교와 문화, 선교역사, 선교학원론, 설교의 이해와 작성, 경건훈련, 목회학, 목회상담학, 교회교육, 설교실습, 논문작성법, 교회정치 행정, 교회개혁과 복음전도, 예배와 예전
기타	고중세철학, 기독교철학, 철학원강 I,II,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세계관과 철학, 근대철학, 문화연구, 철학과 신학	졸업논문
언어	헬라어 I,II, 히브리어 I,II, 라틴어문법, 라틴어강독, 초급헬라어강독	히브리어, 헬라어

[표 5] 총신대 신학과 출신들이 총신대 신학원에서 새로 이수하는 과목 학점과 비율

구분	구약학	신약학	교의학	역사신학	윤리학	실천신학
학점	10	4	2	0	2	26
비율	83%	67%	16%	0%	100%	92%

표 [4]와 표 [5]에 근거하여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의 교과과정을 분석해보면, 교의학과 역사신학 분과 강의가 많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sup>15</sup>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경신학, 윤리학, 그리고 실천신학은 신대원 과정에 집중 편성되어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총신대 신대원의 교과과정을 고신대 신학과-신대원의 교과과정과 비교해 보면, 고신대가 성경신학 분과와 역사신학에 중복 과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총신대는 교의학과 역사신학에 중복 과목

15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목 중복 문제로 인해서, 신학과에서 기초학문 분야 교육이 약화된다는 지적은 정일웅, “한국교회,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커리큘럼과 교수방법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0호 (2006년): 21을 보라. 신학과에서 기초학문 분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학과와 신대원의 중복 과목을 조정하되 신대원에서 주로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평양신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성경 원어의 매우 비중은 미비했지만 성경신학의 비중은 높았다. 전준봉, “한국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과 교육: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9권 (2014년): 236.

이 상대적으로 많다. 2016년 3월,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교수회는 7년 연계과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 3.2 해외 신학교의 교과과정 분석

여기서는 해외 개혁주의 신학대학-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어떠한지 살펴해보는데, 지역을 고려하여 개혁신학교 하나씩 선별한다: 남아공 노스-웨스트대학교(포체스트룸캠퍼스), 네덜란드 아플도른신학대학교, 미국 칼빈신학교. 하지만 고신대와 해외 신학교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해외의 기독교대학이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기독교적 교양과목과 전공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 3.2.1 남아공 노스-웨스트대학교(포체스트룸 캠퍼스)<sup>16</sup>

구분	신학 학사(3년)	목회학 석사(3년)
신약학	헬라이어 단문 번역과 분석, 헬라이어 복문 번역과 분석, 공관복음, 신약 주해와 사회역사적 상황 개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욥종서신, 데살로니가전서, 목회서신, 일반서신, 히브리서
구약학	성경 아랍어 문법, 비 아랍어와 간본문적 연구, 모세오경, 내러티브 본문, 초기 선지서	예언문헌 해석(16학점), 룻기,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교의학	성경적 죄론, 기독교 종교 신학, 에큐메니컬 신조들과 개혁신조들	기독교-종말론, 현대 교회와 교리사
실천신학	개혁교회 정치 개론, 설교의 원리와 실습, 창조적 설교와 실천적 설교, 가정 방문과 상담, 문학적 실습, 인권	신학자들과 그들의 실천적 사역의 가치, 현대 남아공 상황에서의 윤리적 이슈들, 적용된 설교학, 개혁 교회 정치-역사적 관점, 교회 예배 예전, 아프리카 주도적 선교, 선교적 변증학, 적용된 목회 연구

16 <http://www.nwu.ac.za/north-west-university-faculty-theology-masters-programme>

(1) 구약과 신약과 관련하여 학부 과정에서 성경 언어와 성경 장르별 개론을 가르친다. 신대원 과정에 성경 과목이 세분화되어 개설되어 있어서, 성경의 광범위한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치기 보다는 성경 각권(에스라, 다니엘, 로마서 등)에 대한 연구를 개설하고 있다.<sup>17</sup>

(2) 교의학 각론 역시 학부와 신대원에 균형있게 분배되어 있고, 아래에서 살펴볼 아플도른 신학대학교와의 차이점은 신조학이 학부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3) 학부에 설교학 관련 과목들과 심방에 관한 구체적인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부에는 설교와 목회를 적용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다루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실천 과목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에 교회사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독특하다.

### 3.2.2 네덜란드 아플도른 신학대학교(Apeldoorn Theologische Universiteit)<sup>18</sup>

	학부1년	학부2년	학부3년	원부1년	원부2년	원부3년
교의학			4	4	4	
윤리학	2	2	2	2	2	
구약석의		2	4	4	2	
신약석의		2	2	4	2	
철학	4					
종교학	2					

17 비슷한 현상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데, 신학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살펴보면, 학부에서는 신학 분과별 과목에 대한 예비 기초 과정 과목들로 집중되어 있다(예. Proseminar, Kleinens 과목, Grundkurs 과목). 대학원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Study 1에서는 학부 과정 과목과 많은 부분 중첩되는 듯하지만, Study 2에 이르면 분과 별로 고급 과정의 과목들을 개설하여 차별화를 두고 있다.

[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ev\\_theologie\\_ba.html](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ev_theologie_ba.html)

[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magister\\_theologiae.html#Prüfungsordnungen](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magister_theologiae.html#Prüfungsordnungen)

헬라어	18	12				선택1 전공 50 부전공 10
히브리어	14	8	2			
설교학			4	4	2	
석의 서론	4					
교회사 서론	2					
신학 서론	2					
유대학			4			
교회사	2	4	2	2	6	
선택 과목		6	2			
라틴어			8	10	16	선택2 전공 60
방법론	1					
네덜란드 교회사		4				
신구약 서론	4					
신약학		4	4	4		
구약학		4	4	4		
논증학		2		4		
실천 설교학			2	3	2	
심리학	2					
정경론	0.5					
변증학					3	
선교학				2	2	
현대신학사				4		
신조학				2	2	

아플도른신학대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학부에 성경 언어와 고전어 강의가 단기 속성 과정이 아닌 장기간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경신학을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한다.<sup>19</sup> 이전에 입학 전 예비 과정에 교과과정

18 <http://www.tua.nl/index.php?paginaID=43>

이 형성되어 있던 성경 언어와 라틴어가, 예비 과정이 없어지면서 학부와 원부 과정으로 편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경 언어는 학부 저학년에, 라틴어는 학부 고학년과 석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고전 어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하여 재편성된 것이지만, 여전히 이 모든 과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이다.<sup>20</sup>

(2) 각분과의 서론 수업을 학부 1학년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든 분과의 각론이 매 학년에 1강좌 이상 편성되어, 각 분과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전체 과정에 배분한다.

(3) 성경 언어를 습득한 후 매 학년 성경 원어 석의를 시행하면서, 원어에 대한 강조점과 함께 성경 연구와 설교를 위한 기본적 훈련을 강도 높게 제공한다. 방학 동안 3주에 걸쳐 성경 언어를 가르치는 신대원의 교육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4) 윤리학 과목이 학부 3년과 원부 2년 과정 동안 매년 1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는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에서 필수 과목으로 1강좌씩 개설되어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5) 목회학석사 마지막 학년에 신학석사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든 학생이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한 뒤 논문으로 마무리한다.

---

19 유사하게 호주 Moore Theological College의 학부(B.D.) 4년 과정에 필수로 개설된 총 28 과목 중 성경 언어(히브리어 1,2,3, 헬라어 1,2)와 성경 과목(구약성경 1,2,3,4, 신약성경 1,2,3,4, 성경석의 1,2)은 절반을 차지한다. 참고. <https://www.moore.edu.au/undergraduate/bachelor-of-divinity>

20 고전어 교육이 약화되다보니 성경 언어가 신학 이전 과정이 아니라 신대원 과정에 편입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신대원 과정이 실용적으로 변화되다보니, 성경 언어에 대한 강조는 더 약해졌다. Allan M. Harman, "The Place of Biblical Language in the Theological Curriculum,"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0 (1991, 3): 91-97. 반대로 성경 언어 교육보다는 주석, 사전, 그리고 성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은 John A. Davies, "Language and Theological Curriculum,"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2 (1993, 1): 1-11.

### 3.2.3 미국 칼빈대학(Calvin College)<sup>21</sup>과 칼빈신학대학원(Calvin Theological Seminary)<sup>22</sup>

구분	학부(각 3학점)	목회학석사
기본	성경 문학과 신학, 기독교 신학	구약, 신약, 고대근동어와 문학, 기독교 역사, 신학적 연구, 신 교회성장학, 상황 사역, 전도와 교육, 설교와 예배, 목회 돌봄과 리더십, 청년과 가족 사역
중급성경연구	모세오경, 구약 역사서, 시편과 지혜문학, 선지서,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요한문학, 바울서신, 계시록과 공동서신	
고급성경연구	성경해석, 성경신학,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고학, 여성이 구약을 읽을 때, 중간기 유대주의, 기독교의 기원	
중급신학연구	계시론, 신론, 창조론, 그리스도와 화해론, 성령론과 교회론, 종말론, 기독교 예배, 일반 교회사, 미국의 기독교, 기독교 신학의 역사 I,II, 기독교와 종교다원주의	
고급신학연구	신학의 이론과 방법, 신학적 윤리학, 로마가톨릭 신학 연구, 초대와 중세 신학 연구, 어거스틴과 어거스틴주의 전통, 종교개혁 신학 연구, 칼빈의 기독교 강요, 현대 신학 연구, 종교학 서론, 세계 종교들, 종교학,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기타 과목	선교학개론, 기독교와 문화, 종교와 교육 세미나, 기독교 예배의 주제 조사연구, 종교 세미나, 현대 미국 종교 상황	

(1) 위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학교가 긴밀한 교과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각 분과별 교과

21 <http://www.calvin.edu/academic/religion/academics/courses.html>

22 <http://www.calvinseminary.edu/academics/degrees-and-programs/> 칼빈대학 학부의 경우 종교학과(Religion)와 신대원 진학을 위한 예비전공(신예과, pre-seminary)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글에서는 칼빈대학 홈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종교학부 교과과정만 소개한다. 참고로 종교학과보다 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신학과' (Theological Studies), 그리고 신학과보다 더 기초적이고 신대원을 준비하는 신예과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없다.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는 힘들다.

(2) 학부과정에서 이미 신학 교육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타 대학 신대원 수준의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신학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 한국의 목회학석사 과정과 유사하게, 학부와 연계된 과정보다는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진행한다.

### 3.2.4 분석

이상의 해외 신학교의 교과과정을 볼 때, 칼빈신학교를 제외한 두 학교의 교과과정상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학부와 신대원의 교과목은 중복되지 않는다.

(2) 학부 과정에서 성경원어 교육과 신학 개론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3) 학부 과정에서 신대원 교과과정을 위한 각 신학 분과의 배경 혹은 기초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필요시 학부 과정에서도 각 분과의 각론을 수학하며, 나머지 부분을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4) 신대원 교과과정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목회와의 간격을 최소화하도록 편성되어 있다.<sup>23</sup>

## 4 신학교육의 문제점

---

23 교회를 떠나고 있는 젊은이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목회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수성 있는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Naomi H. Annadale and Erik W. Carter, "Disability and Theological Education: A North American Study," *Theological Education* 48 (2014, 2): 83-102; L. Gregory Jones, "Innovation in Theological Education: Something Old, Something New," *The Christian Century* 131 (2014, 4): 35-36.

이 글 1-2에서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과정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두 과정 사이의 신학교육 연계의 부족, 그리고 (2) 강의 내용 전달의 한계.

#### 4.1 신학교육 연계의 부족

(1)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의 신학 교육에 있어 체계나 연계성이 매우 약함으로 인해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의 신학 과목의 중복 개설이 문제로 나타난다.<sup>24</sup> 교과 과목 자체만 놓고 볼 때 어느 학교가 학부인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복 개설되어있다. 몇몇 과목의 경우 신대원보다 학부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2) 중복 개설 과목으로 인해 고신대 신학과 출신 학생들이 신대원에서 학습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을 다시 신대원에서 수강하게 되어 교육의 반복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고등교육에서 대학원 3년 내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전공 수업을 이수한다는 것은 석사과정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학 지식과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업의 동기 상실 및 신학 공부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유발할 수도 있다.

---

24 고신대의 교과목 중복 비율은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비교할 때 높는데, 후자는 신대원에서 한시적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와 선택 과목이 구약학 48과목(12과목), 신약학 43과목(4과목), 조직신학 34과목(3과목), 교회사 40과목(2과목), 기독교와 문화 21과목, 실천신학 33과목, 선교학 36과목(1과목), 기독교교육 34과목, 교회음악 13과목(3과목)을 개설한다(괄호 안의 숫자는 학부와 중복된 과목 수를 가리킴). 구약학이 학부와 신대원에서 25% 중복되지만 나머지 분과는 10% 이하인데, 신대원 과정에서 과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설하고 있다.

[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3&m3=4;](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3&m3=4;)

[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2&m3=2&m4=1\\_2\\_1](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2&m3=2&m4=1_2_1)

## 4.2 강의 내용 전달의 한계

(1) 한 학기 동안 한 강좌를 통해서 그 과목명의 전체 내용을 다루기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구약의 모세오경, 신약의 서신서, 조직신학의 교회론-종말론 등은 강의 중 다룰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 학기 안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설령 강의 진도를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신대원의 한 학년 정원인 12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면,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 깊이가 상대적으로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sup>25</sup> 다시 말해, 강의명에 맞게 전체 교육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그 범위의 방대함으로 인해 대학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대원 과정이 일반 학부 과정의 정보 전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신대원의 주입식 3년 교육이 이후의 목회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있었다.<sup>26</sup>

(2) 실제 강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전체 범주를 다 다루지 못하고 종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과목은 3년 내에 다시 개설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한 보충 강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평생 이와 같은 과목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습 역량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달리게 된다. 그러니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배우지 못한 과목에 관해서는 교회 교육과 설교에 있어서 등한시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 중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만 다루거나, 공관복음서 중 일부분만 배울 경우 나머지 부

---

25 참고로 칼빈신학교와 노스-웨스트대 학부와 신대원의 경우 한 강의에 수강생은 약 10-20명, 아플도른신학대학교는 15-30명이다.

26 물론 주입식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비율 조정과 ‘세미너리’에 걸맞는 세미나 방식의 강의 진행 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Jesse H. Ziegler, “Ferment in Curriculum Study,” *Theological Education* 2 (1966, 3): 166; 서인선, “한국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신약신학 과목의 교육 방법론과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51.

분은 다시는 배울 기회를 갖기 어렵다.

### 4.3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분석

위의 두 가지 두드러진 문제점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기간: 2015. 7. 7-8. 17)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 후,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수료한 전국의 현직 강도사와 목사 102명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설문 내용

1. 고신대 신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2. 고신대 신학과의 교과과정 중 전공과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3. 고신대 신학과의 교과과정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교수 전달법   강의내용 부실   교과과정의 체계성   선택 과목의 제한   기타:
4. 고신대 신대원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 고신대 신대원의 교과과정 중 전공과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6. 고신대 신대원의 교과과정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교수 전달법   강의내용 부실   교과과정의 체계성   선택 과목의 제한   기타:
7. 신학과와 신대원의 전공과목들이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8. 신학과와 신대원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과목들이 급변하는 교회추세와 목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9. 본인이 이수했던 전공교육과정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10. 신대원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개론과목 내실화 유사과목 통폐합 목회 현장의 요구 반영 인성 수업 강화 기타:

위의 10가지 문항 중 가장 마지막 2개의 문항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질문 9] 본인이 이수했던 신대원의 교육과정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sup>27</sup>

답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총계
인원	0	2	9	58	33	102 명
비율	0%	1%	9%	57%	32%	

[질문 10] 신대원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가장 보완되어야 하나요?

답변	개론과목 내실화	유사과목 통폐합	목회 현장 요구 반영 <sup>28</sup>	인성 수업 강화	기타	총계
인원	14	51	31	5	1	102 명
비율	14%	50%	30%	5%	1%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대원 과정을 이수한 전체 응답자 102명 중 89%가 교과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반응했고, 50%가 유사과목 통폐

27 반올림되지 않는 소수점 때문에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니라 99%이다.

28 신학교가 교회와 멀어지면 신학교육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신학교육이 추상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Mohler, "Thinking of the Future," 280-281. 또한 Mohler는 M.Div지원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신대원이 다른 과정들을 개설하는 것에 주의를 준다.

합을 개편 시 가장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았다. 학부와 신대원 교과 과정을 모두 경험한 현직 목회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 5 신학 6년 연계 교과과정

### 5.1 신학과 4년 과정

학부 3년 그리고 신대원 3년 총 6년 동안 연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노스-웨스트대학교와 아플도른신학대학교의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신학과 4년은 신대원의 심화된 학습을 위한 기초 교과목 중심으로 개설하면 된다: 1학년은 교양과 현대 언어, 2학년은 철학, 고전어, 성경 언어, 3학년은 성경 언어와 성경 개론, 그리고 4학년은 성경 원문 강독과 기초 교리와 신조.<sup>29</sup> 고신대 신학과에 개설된 전공 관련 36과목 중 13개가 성경 언어와 신구약 관련인데, 28%를 차지하기에 비율이 현저히 낮지는 않다. 이와 관련된 교과과정은 츠빙글리가 1525년에 설립한 최초의 개혁신학교인 ‘예언학교’ (Prophezei)의 커리큘럼인데, 성경 원문에 근거한 주해와 설교가 중심 교과목이었다.<sup>30</sup> 하지만 성경 언어와 주해 과

---

29 2003년에 성결대학교가 만든 ‘신학 7년 교과과정’에 의하면, 학부 4년 과정에 성경 언어, 성경 개론, 원문 강독, 기초 교리는 전공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었다. 심지어 신대원 3년 과정에서 신학의 기본 도구인 성경 언어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과목이다. 서인선, “한국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신약신학 과목의 교육 방법론과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55-58; <http://grad.sungkyul.ac.kr/>. 교양에 신학처럼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 베를린대학교가 개교하기 이전까지 교양은 신학을 위한 기본 교과였다. D. H. Kelsey, *To Understand God Truly: What's Theological about a Theological Schoo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80-81.

30 참고. 임희국,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유산과 한국(평양) 장로회신학교 신학교육,” 「장신논단」 45호 (2013년, 1): 98-100. 성경 석의 훈련이 신학교육의 기본이라는 주장은 서인선, “한국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신약신학 과목의 교육 방법론과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50.

목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지식이 설교와 목회로 실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칼빈대학처럼 고신대 신학과 학생 중 신대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구분하여 세부 전공을 두 트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5.2 신대원 2년 과정

신학과와 신대원의 과도한 중복 교과과정을 감안할 때, 6년 연계를 통해서 신학과 출신의 수업 연한을 1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31</sup> 신학과 출신 신대원생은 1-3학기에 성경 각 권의 석의와 성경신학에 근거한 설교실습, 실천신학, 교리, 교회사를 이수하고(그리고 목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는 과목), 4학기에는 졸업 논문을 작성하게 한다. 만약 신학과 출신이 신대원에서 3년 동안 수학한다면, 아플도른신학대학처럼 마지막 학년은 논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학석사(Th.M.)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 5.3 비신학과 출신은 신대원 3년 과정(신학과 3, 4학년 기초 필수 과목 이수)

비신학과 출신은 신대원의 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신대원 과정을 신학과 출신이나 비신학과 출신이나 동일하게 2년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비신학과 출신은 학부에 개설된 기독교철학, 성경 언어, 그리고 성경 장르별 개론 중심의 전공과목을 1년 동안 이수하여 보충

---

31 한신대 신학과 출신은 한신대 신대원을 3년이 아니라 2년간 수학한다. <http://dept.hs.ac.kr/gsth/>



하면 된다.<sup>32</sup> 더불어 신대원과 교회의 괴리감을 줄여 현장성과 경건을 배양하는 교과과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으며,<sup>33</sup> 목회 현장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교과목도 필요하다.

## 6 나가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해법의 첫 단추는 신학과와 신대원의 과도한 중복 교과과정이라는 신학교육의 비정상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바로 잡는 것이다. 개혁신학적 소양을 건실하게 갖춘 ‘영혼의 의사’인 신실한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신대원 3년 속성 과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계과정을 시행해온 서구 개혁교회가 운영 중인 신학교처럼 6년 동안 심화된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 신학지원자가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학과와 신대원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기존의 신대원 교과과정은 물론 신학과 교과과정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학생이 교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수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과과정 개편의 가장 중요한 이유

---

32 Robert L. Kelly, “The Theological Seminary Curriculum,” *Religious Education* 21 (1926, 5): 503. 참고로 고신대 영도본부에서 신학 6년 연계과정이 개설될 경우 기대되는 유익 다음과 같다: (1) 고신대 학부 출신들이 신대원이 소재한 천안까지 왕복할 필요가 없어져서 경제적, 시간적 절약이 가능하다. (2) 수업 연한 단축과 연계과정으로 인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다. (3) 부산-경남의 신학지망생들에게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부권에 신학교육을 제공하는 신대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33 허명섭,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교육의 방향성을 위한 한 제언,” 『성결교회와 신학』 16호 (2006년): 120.

34 이 논문이 개혁신학회에서 발표되고 논문의 요약이 ‘기독교보’와 ‘코람데오닷컴’에 소개된 후, 고신 총회 산하 미래대책 위원회는 신학대학과 신대원의 연계를 위한 연구를 고신대에 지시했다. 2016년 6월 21일에 고신대 신학대학과 신대원의 연구위원들이 고려학원 이사장과 이사회 서기가 배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라면 학부와 신대원 교수들은 겸손하게 부차적인 이유들을 내세우지 말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sup>34</sup>

참고문헌

- 변종길. “신학교부터 새로워져야.” 『기독교보』 2015년 12월 23일.
- 서인선. “한국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신약신학 과목의 교육 방법론과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0호 (2006년): 41-73.
- 임희국. “즈빙글리 종교개혁의 유산과 한국(평양) 장로회신학교 신학교육.” 『장신논단』 45호 (2013년, 1): 93-117.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일동.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성명.” 2015년 8월 15일.
- 전준봉. “한국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과 교육: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9권 (2014년): 213-244.
- 정일웅. “한국교회,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커리큘럼과 교수방법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0호 (2006년): 7-40.
- 허명섭.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교육의 방향성을 위한 한 제언.” 『성결교회와 신학』 16호 (2006년): 109-128.
-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교과과정에 관한 설문자료.” 2015년 7월 7일-8월 17일.
- “성도는 목회자의 ‘스펙’ 보다 ‘성품’ 을 우선한다.” 『기독신보』 2016년 1월 5일.
- Aleshire, D. O. “Diversity in Theological Education and the Life of the Church.”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1 (2014, 4): 232-239.
- Annadale, N. H. and Carter, E. W. “Disability and Theological Education: A North American Study.” *Theological Education* 48 (2014, 2): 83-102.
- Campbell, T. C. “Theological Curriculum for the 1970’s.” *Theological Education* 4 (1968, 3): 671-727.
- Costen, J. H. “Black Theological Education: Its Context, Content and Conduct.” *Journal of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 39 (2014, 1): 9-19.
- Cronshaw, D. “Reenvisioning Theological Education, Mission and the Local Church.” *Mission Studies* 28 (2011): 91-115.
- Davies, J. A. “Language and Theological Curriculum.”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2 (1993, 1): 1-11.
- Elia, A. J. “Assessing the Future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Theological Education: A Techno-History and its Legacy.”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Summary of Proceedings* 68 (2014): 35-52.

- Harman, A. M. "The Place of Biblical Language in the Theological Curriculum."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0 (1991, 3): 91-97.
- Jones, L. G. "Innovation in Theological Education: Something Old, Something New." *The Christian Century* 131 (2014, 4): 33-36.
- Kelly, R. L. "The Theological Seminary Curriculum." *Religious Education* 21(1926, 5): 501-504.
- Kelsey, D. H. *To Understand God Truly: What's Theological about a Theological Schoo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Mohler, R. A. "Thinking of the Future: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 in a New Age." In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Evangelical Tradition*, edited by D. G. Hart and R. Albert Mohler, Jr. Grand Rapids: Baker, 1996: 278-283.
- Pasquarello III, M. "God Our Teacher: A Wesleyan Vision of Theological Edu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8 (2013, 2): 78-92.
- Strandjord, J. P. "For the Sake of Liberating Wisdom: The Near-Future of Theological Education."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1 (2014, 4): 247-255.
- Sumner, G. R. "The Second Canary: Thoughts on Theological Education." *Pro Ecclesia* 24 (2015, 3): 267-270.
- Ziegler, J. H. "Ferment in Curriculum Study." *Theological Education* 2 (1966, 3): 165-210.
- <http://csts.chongshin.ac.kr/>
- <http://dept.hs.ac.kr/gsth/>
- <http://grad.sungkyul.ac.kr/>
- <http://ssg.kosin.ac.kr>
- <http://www.calvin.edu/academic/religion/academics/courses.html>
- <http://www.calvinseminary.edu/academics/degrees-and-programs/>
- [http://www.chongshin.ac.kr/mbs/csu/subview.jsp?id=csu\\_030101010000#goto03](http://www.chongshin.ac.kr/mbs/csu/subview.jsp?id=csu_030101010000#goto03)
- <http://www.knews.or.kr/news/view.html?smode=&skey=%BA%AF%C1%BE%B1%E6&x=22&y=11&section=79&category=83&no=6877>
- <http://www.kts.ac.kr/ww2/contents.knf?cid=c120406233255>
- <https://www.moore.edu.au/undergraduate/bachelor-of-divinity>
- <http://www.nwu.ac.za/north-west-university-faculty-theology-masters-programme>
- [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3&m3=4;](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3&m3=4;)
- [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2&m3=2&m4=1\\_2\\_1](http://www.puts.ac.kr/main/sub2011/sub_3.asp?m2=2&m3=2&m4=1_2_1)
- [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ev\\_theologie\\_ba.html](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ev_theologie_ba.html)

[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magister\\_theologiae.html#Prüfungsordnungen](http://www.theologie.uni-heidelberg.de/studium/magister_theologiae.html#Prüfungsordnungen)

<http://www.tua.nl/index.php?paginaID=43>

## 국문초록

오늘날 신학교육은 교과와 인종에 따라 다양할 뿐 아니라 실천적 적합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IT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학교육은 현장성이 무시된 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신학교에만 고립될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교회, 사회가 상호 연결되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과정에서 3년간 속성으로 수학한 후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학과 출신들이 신대원에서 심화된 연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손실인데, 많은 교단신학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총신대 및 해외의 연계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개혁신학교들의 교과과정과 비교할 것이다. 그 후 신학과와 신대원의 6년 연계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비신학과 출신들을 위한 신대원 교과과정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신학과, 신대원, 6년 연계교육, 심화 교육, 목회자의 질적 향상

Abstract

## **Necessity of a 6-Year Consistent Theological Curriculum Focus at Kosin University**

Song, Young Mog & Jung, Chan Do  
Kosin University

Globally, theological education is facing a crisis in its quality as well as its quant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the necessity of a 6-year consistent theological curriculum implementation by Kosin University.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erms of theological curriculum between undergraduate and M.Div. programs is the duplication and repetition of subjects. By comparing curricula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ies, the present researchers suggest a progressive system of a 6-year consistent curriculum from undergraduate through M.Div. studies. During 4 years of undergraduate courses, students take basic subjects like biblical languages, classical languages, philosophy, reformed creeds, and an introduction to each genre of the Bible in order to set a base for advanced training in M.Div. coursework. Then, during 2 years of M.Div. courses, students take subjects focusing on exegesis, homiletics, church history, dogmatics, and practical and ecclesiological issues caused by churches and society. The 6-year consistent curriculum seems to play a key role for solving problems in the Korean church which are raised fundamentally by ineffective theological education.

*Key Words:* Faculty of theology, Theological Seminary, 6-year Consistent Curriculum, Deepening Education, Quality Enhancement of Ministers